

진도 용산저수지 통수...“210ha에 생명줄 열었다”

✎ 펜앤호남 | ⓒ 승인 2025.04.18 12:22

한국농어촌공사, 2025 영농 개시 공식 선언
최진 지사장 “기후위기 속 수리안전 최우선 과제”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2025년 영농 개시를 알리는 통수식을 용산저수지 일원에서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도군]

용산저수지 통수식이 열리며 진도지역 210ha 농지에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수리안전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2025년 진도지역 농사의 첫 물꼬가 공식적으로 열렸다.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지사장 최진)는 16일 진도군 임회면 용산저수지에서 통수식을 개최하고, 210헥타르 규모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며 올해 영농의 시작을 알렸다.

용산저수지는 진도 임회면 일대를 아우르는 주요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지역 농업의 생산성과 안정성 확보에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통수가 아닌, 풍년 농사와 재해 없는 한 해를 기원하는 상징적 의식으로 진행됐으며,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뜻을 담아 지역농업인과 행정이 함께 기원을 올렸다.

최진 지사장은 "기후변화로 가뭄과 집중호우 등 예측불가능한 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리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안전운영이 농업의 생명줄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사는 전방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군]=펜앤호남 honam4689@naver.com

<펜앤드마이크 호남지사>는 권력 감시와 지역 정의 실현을 위해 여러분의 공익 제보를 기다립니다.

[공익 제보 : honam4689@naver.com]



펜앤호남 honam4689@naver.com